

'흠어진 한국미술사' 바로 잡는다

문화계 사람들

< 5 >

풍요가꾸는 보람의 현장을 찾아

웃음을 위해 오늘을 정화하게 기록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근들어 자료들을 수집 정리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꼭 필요한 기록이나 자료들을 찾아내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

문화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기록정신을 목표로 하는 기록경기도 아니고 철저하게 가정(22樓)을 해야하는 장사도 아니어서 기록이나 자료들을 두지하기 실상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남아야 알아주는 많은 그늘에 묻혀 오로지 미술정보와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문화계 사람들이 있다.

김달진씨(88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미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도 많았다. 이따금 미술잡지에 그가 쓴 글이 실리기도 하고 그의 자료를 인용한 신문기사도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무슨일을 하는지 또 그가 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모른다. 일반인-인식이나 어떨만큼 미술계에서는 그를 '흠어진' 자료

편집 최영희기자

살'이라 부른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만 되면 어김없이 큰가방을 들고 화랑가에 자트를 얻으러 나타나는 그를 이르는 친숙하게 느낀다.

그는 외출하는 금요일을 제외한

화랑가 기웃기웃 10여년... 이젠 '1급전문가'공인 산사람을 '고인'으로 기록하는등 웃지못할 자료 수두룩 "미술인 모든것 담을 3,500인카드 완성이 평생꿈"

나머지 시간엔 귀한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복과물히 지낸다. 미술관 주변의 전원이 허어나 남들은 자연경치도 즐기고 미술품도 감상할겸 일부러 미술관에 들른다고 하지만 그는 손을 뻗으면 닿을듯한 자연을 곁에 두고도 제대로 즐기지 못한채 벌써 9년을 보냈다.

그의 자료실은 대충 3가지로 요약된다. 3천5백명이나 되는 미술인들의 개인신상카드를 정리하고 외국미술관들과 자료교환. 그리고 팔팔한 포스터 화집같은 전시자료수집과 미술 관련 기사 스크린이 그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단순한 업무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가 수집했던 자료를 토대로 했던 글들을

미술자료전문가

김달진씨



◆ 미술자료 전문가 김달진씨.

보면 생각이 달라진다. '관람객은 속고있다—정확한 기록과 자료보존을 위한 재원'(선미술 85년 겨울), '50여개 공모전 그 실상과 허상'(월간미술 88년 2월호), '대박이후 여신미술의 발자취'(월간미술 89년 3월호), '대한민국공예대전—봉계로 본 역사와 현황'(월간미술 89년 7월호), '80년대 한 일교류전 일지'(월간미술 89년 9월호) 등이 미술계에 끼친 영향은 상당한 것이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하고있는 일을 할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왔다. "저는 미술자료를 모으는 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일자리를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일면식도 없는 미술

평론가 신문 잡지 미술담당기자 그 밖의 미술관계자들에게 원수 없을 만큼 덕지덕지 보냈었다. 대부분은 묵묵부답, 그들중의 몇몇은 '모르는걸 좋아하는 건 네 취미다, 취미는 취미에서 끝내야지 직업으로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건 어리석은 생각이다'는 내용의 냉담한 답신도 받았었다.

그가 마침내 꿈을 이룬 것은 지난 81년. 이경성씨(국립현대미술관장)에게 발탁돼 지금의 일자리를 얻은 것. 별칭작 7급공무원이라는 그의 위치는 그리 대단한 것도, 보수가 많은 것도, 그렇다고 업무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에 대만족이다. 너무 만족해하

는걸 보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쯤엔 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가 의구심을 품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가 살아온 길지 않은 생의 역사를 들여보면 험사리 남쪽이 진다.

53년 충북 옥천에서 태어난 그는

어렸을때부터 필자를 닮았는데도 모았다. 손에 들어온 건 뽕뽕 버릴 줄 몰라 어른들에게 아담도 많이 맞았다.

처음엔 우표를 주로 모으다 나중엔 여러가지 예쁜 그림들에 깊이 빠져들었다.

우표 그림과는 또다른 맛을 주는 미술품으로 레오나르도다빈치의 그림에 매혹됐다. 시골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잡지나 신문에 그림만 실리면 무조건 활과 가위를 들고 검색했다.

그렇다고해서 뭘 알고 그리했던 것은 아니다. 미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서도 그저 그림을 가지고 싶다는 단순한 욕구에서 그리했다. 그러다 중학시절 이영환씨의

'서양미술사'를 복과한후에는 더욱 그림에 애정을 갖게됐고 서울 한영고고를 진학해서는 아예 그림수집과 미술기사스크랩에 매달려 살다시피했다.

청계천의 현백방들을 쏘다니며 탐지않은 용돈으로 현 화집을 사기도 했고 책방주인에게 사사일간지에 실린 그림만 골라주고 놀라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했다.

"지금도 보관하고 있는 옛날 스크랩들을 다시 꺼내보면 우스웁스럼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것은 김달진씨에겐 너무나 진지한 작업이었다.

그의 오늘을 보다 구체화시켜준 것은 72년 경복궁에서 열렸던 '한국근대미술60년전'이었다. 이 전시회는 1900년부터 60년까지의 한국화단을 정리한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데도 팔팔한 열망이었다.

국전 심사위원까지 지낸 중진작가에 관한 자료조사 명성했다. 이때 그는 다시금 미술자료전문가가 돼야겠다고 결심했고 그로부터 9년간의 방황 끝에 국립현대미술관의 직원이 되었다.

김씨는 고졸학력으로 전문가가 되기 어려운 것 같아 지난 2월 뒤늦게 진학, 야간인 서울산업대 금속공예과 1학년에 재학중이다. 야간에는 미술사과정이 있어 금속공예과에 진학했다는 그는 창작활동보다는 앞으로 대학원에 진학, 본격적으로 미술사전문가로서 이론과 실재가 맞아 떨어지는 미술전문가, 미술사가가 돼보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전향은 더욱 매워질 것이다.

선미술에 '관람객은 속고있다'를 기고한뒤 그는 많은 항의를 받았다. 미술연감이나 전시관을 열며 실려있는 작가경력 작가연보 미술사연보들의 부정확성을 꼬집은 이 글이 나가자 '공무원이면 실사 잘못했더라도 감싸주어야지 오히려 까발리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는 등의 항의를 받은것.

그러나 그는 잘못된 기록들을 틀리내는 일을 그만둘 생각은 없다.

예를 들어 '88 문예연감'에는 생존해있는 공예가 백태호씨(이대교수)를 작고로 썼는가하면 한국미술연감사의 '미술사전'인명편에 일본에서 활동하는 조카가 이우환씨를 작고로 표시하기도 한 오류가 계속되고 있는 한 미술자료를 정리하고 오류를 지적해 바로 잡게하는데 신념을 바치겠다는 것이다.

"공은 많아요. 모두가 자료에 관한 것이지만요. 지금 미술인카드에 건축이나 사진분야작가의 자료가 미미한 편이지요. 이것부터 채워놓고 지금은 그저 개인카드에 개인전활동들을 모으는 것이지만 이걸 좀더 체계화시켜나갈 생각입니다"

다. 화집이나 작가 전시회할까 지 평가해서 미술인 카드만 보면 그 작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수있도록 해야죠"

여건도 좀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 지금은 차원이 없어 그 무거운 도록들을 들고 다니고 있고 보다못한 아내 최현희씨까

지 나서 도와주고 있지만 하루빨리 가동력이라도 갖췄으면 좋겠다. "이 기사를 보고 지방화거나 화랑들이 전시광물들을 꼭 좀 보내줬으면 해요. 지금은 차원이 없어 그 무거운 도록들을 들고 다니고 있고 보다못한 아내 최현희씨까

김혜경기자